太平洋協力論議의 展開와 우리나라의 對應

楊 秀 吉

▷ 目 次 ◁

Ⅰ. 序 言
Ⅱ. 地域協力의 必要性
Ⅲ. 地域協力論議의 略史
Ⅳ. 地域協力體의 構想과 爭點
Ⅴ. 太平洋經濟協力會議의 活動과 意義
Ⅵ. 우리나라의 立場과 對應現況
Ⅶ. 結 言

Ⅰ. 序 言

太平洋을 가운데 두고 있는 太平洋地域國家들(Pacific Basin Countries) 사이에 地域協力體(Pacific Community)[1]를 結成하자는 움직임은 적어도 20년 以上의 歷史를 갖는다. 그러나 太平洋協力體가 구체적으로 結成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時日이 經過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地域協力體가 언젠가는 반드시 結成되리라는 保障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太平洋地域國家들 사이에는 太平洋協力體를 指向하는 움직임이 太平洋經濟協力會議(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라는 이름 아래 서서히 組織化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政府次元에서는 太平洋協力推進을 위한 頂上會談을 우리나라의 全斗煥大統領이 提議한 바 있다. 이러한 民間과 政府 兩側의 움직임을 볼 때 멀지 않은 장래에 하나의 太平洋協力體가 結成될 可能性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太平洋協力體가 이미 孕胎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성격이 어떠하든 간에 對外指向性이 높은 太平洋地域國家의 하나인 우리나라에게는 太平洋協力體가 갖는 의미가 莫重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銳意 注

筆者 : 韓國開發硏究院 硏究委員

1) Pacific Community란 槪念은 本稿와 같은 內容의 論議主題를 나타내기 위하여 흔히 쓰이고 있다. 或者는 이를 '太平洋共同體'라고 飜譯하고 있으나 이는 歐洲共同體를 聯想시키는만큼 지나치게 狹義的인 飜譯이다.

視하고 나아가서는 뚜렷한 目的意識과 自主的 戰略을 갖추고 計劃性있게 그리고 能動的으로 이에 參與하여야 할 것이다.

本稿의 目的은 이러한 趣旨에 立脚하여 太平洋協力의 內容을 整理, 分析하고 太平洋協力의 推進現況과 우리나라의 役割을 論하는 데에 있다.

本稿의 主要內容은 第Ⅱ章～Ⅵ章에서 다루어진다. 第Ⅱ章에서는 地域協力體論議의 根據 또는 背景으로서 地域協力의 必要性을 論하고 第Ⅲ章에서는 地域協力論議의 歷史를 紹介한다. 第Ⅳ章에서는 4가지의 地域協力體構想을 紹介 評價하고, 第Ⅴ章에서는 現在 運營되고 있는 太平洋經濟協力會議의 槪要와 展望을 다룬다. 第Ⅵ章에서는 우리나라의 太平洋協力活動現況을 論한다.

Ⅱ. 地域協力의 必要性

1. 異質的 國家構成

크게 나누어 볼 때 太平洋地域은 亞洲太平洋地域과 美洲太平洋地域으로 構成된다. 그중 亞洲太平洋地域은 말레이半島以東의 東南亞諸國, 中國, 韓國, 日本 등의 東北亞諸國, 그리고 濠洲를 위시한 太平洋島嶼諸國으로 構成된다. 또한 美洲太平洋地域은 北美의 카나다와 美國, 中南美의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으로 構成된다.

이러한 國家構成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太平洋地域은 地理的으로 廣濶할 뿐 아니라 또한 域內國家間의 人種的·文化的·歷史的 多樣性과 政治經濟上의 制度와 發展段階의 相異함에 비추어 보아 相互異質性이 매우 높은 地域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太平洋地域國家間의 異質性에도 不拘하고 太平洋地域協力이 論議되기에 이른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 30餘年동안 世界的으로 꾸준히 進展되어 온 市場經濟國家들의 國際化 趨勢를 타고 域內의 主要市場經濟國家들이 對外開放度를 크게 높여 온 結果이다.

2. 主要市場經濟의 開放化

지난 20年을 基準으로 하여 輸出의 對國內總生産(GDP)比率의 水準과 變化를 檢討하여 볼 때(表 1 參照) 太平洋地域에서 對外開放度를 가장 急速히 높여왔고 同時에 對外開放度가 가장 높은 나라는 韓國, 臺灣, 홍콩 및 싱가포르의 4個 아시아 新興工業國家들(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NICs)이다. 싱가포르를 除外한 東南亞國家聯合(ASEAN) 4個國을 살펴보면 그중 인도네시아, 泰國, 필리핀 역시 지난 20餘年間 꾸준히 對外開放度를 높여와서 인도네시아와 泰國의 경우 中進國의 平均水準을 上廻하기에 이르렀고 말레이지아는 일찍부터 異例的으로 높은 開放度를 維持하여 왔다.

또한 〈表 1〉에 의하면 濠洲를 除外한 太平洋地域의 先進國들도 經濟開放度를 상당히 높여왔다. 특히 카나다와 뉴질랜드의 經濟開放速度와 水準은 英, 獨, 佛 등 主要 유럽國家와 比肩된다. 美國 역시 元來의 水準에 비교하여 지난 20餘年間 經濟開放度를 상당히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濠洲는 經濟開放度를 별로 提高시키지 못하였으며 日本 역시 매

우 低調한 經濟開放化實績을 보였다. 中南美의 경우 멕시코와 칠레는 약간의 經濟開放度 提高를 보였으며 콜롬비아와 페루의 경우에는 經濟開放度의 減少를 겪은 結果 4國 모두가 中進國의 平均水準에 비추어 낮은 經濟開放度를 維持하고 있다.

이처럼 太平洋地域國家들의 經濟開放化實績은 全體的으로 不均一한 가운데 아시아 NICs와 主要 ASEAN國家들 및 카나다, 뉴질랜드 등은 높은 經濟開放度를 維持하기에 이르렀고 美國과 日本의 경우 相對的으로 낮은 經濟開放度를 維持하는 가운데 완만히 그 水準을 높여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海外依存의 管理問題

經濟開放度의 提高는 經濟成長에 있어서 貿易增大가 그만큼 主導的 役割을 遂行하였음을 나타낸다. 또한 아시아 NICs의 경우에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貿易增大는 經濟成長의 主要源泉이 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表 1〉에도 反映되는 바와 같이 貿易主導的 經濟成長은 빠른 經濟成長의 前提가 되는 것이 事實이다. 보다 根本的으로 經濟開放度의 提

〈表 1〉 主要 太平洋地域國家의 經濟構造 比較

	人口, 百萬 1981	1人當 國民總生産		輸出／國內總生産, %	
		1981, 美弗	成長率, % 1960～81	1960	1981
低所得國家平均		270	2.8	7	9
中共	991	260	1.4	4	9
中所得國平均		1,500	3.7	17	23
인도네시아	150	530	4.1	13	28
泰國	48	770	4.6	17	25
필리핀	50	790	2.8	11	19
페루	17	1,170	1.0	20	17
콜롬비아	26	1,380	3.2	16	12
韓國	39	1,700	6.9	3	39
臺灣	18	2,577	7.0	11	53
말레이지아	14	1,840	4.3	54	53
멕시코	71	2,250	3.8	10	13
칠레	11	2,560	0.7	14	18
홍콩	5	5,100	6.9	82	111
싱가포르	2	5,240	7.4	163	212
先進國平均		11,120	3.4	12	20
뉴질랜드	3	7,700	1.5	22	29
(英國)	(56)	(9,110)	(2.1)	(21)	(28)
日本	118	10,080	6.3	11	15
濠洲	15	11,080	2.5	15	15
카나다	24	11,400	3.3	18	28
(프랑스)	(54)	(12,190)	(3.8)	(15)	(22)
美國	230	12,820	2.3	5	10
(獨逸)	(62)	(13,450)	(3.2)	(19)	(30)

資料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3.
Republic of China, *Statistical Yearbook of the Republic of China*, 1982.

高는 國家經濟 사이에 相互依存度가 增大됨을 意味한다. 國際貿易의 增大는 各國市場의 相互的인 開放과 浸透의 增大를 意味하기 때문이다. 貿易의 增大가 主要 經濟成長源이라 함은 經濟成長政策의 見地에서 相互依存度의 增大가 바람직한 것임을 나타낸다. 相互依存關係下에서 各國은 比較優位의 實現을 통한 資源配分上의 效率, 規模經濟와 競爭提高의 同時的 追求를 통한 經濟成長과 技術革新의 加速, 國家別 天然資源과 資本 및 技術의 賦存狀態로 인한 制約의 克服 등을 追求할 수 있다는 것이 그 理由가 된다.

反面에 相互依存關係의 深化 또는 그러한 關係自體는 그 나름의 政策問題와 利害相衝의 狀況을 隨伴하기 때문에 問題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2]. 農產品, 原油등의 1次產品價格의 騰落으로 인하여 輸入國 또는 輸出國이 겪는 苦痛이 한 例가 된다. 海外의 保護貿易主義의 强化로 인한 輸出企業의 挫折과 外國商品의 浸透로 인한 產業構造調整問題도 마찬가지로 重要한 例가 된다. 海外의 景氣變動과 通貨金融政策으로 인한 衝擊도 역시 重大한 問題를 야기시켜 준다.

相互依存關係가 가져다 주는 이러한 여러가지 問題가 發生함에 따라서 個別國家들은 海外依存度를 減少시켜 나아가는 이른바 對內指向化를 追求하자는 國內輿論의 擡頭를 흔히 겪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相互依存關係의 適切한 利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惠澤을 포기하는 結果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個別國家의 立場에서 보아도 海外依存에 대한 合理的 對策은 이를 深化 또는 維持하여 나아가는 同時에 國家間 相互依存關係를 適切히 運用 또는 管理하도록 도모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太平洋協力論議는 域內自由市場國家間의 經濟協力論議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見地에서 各國의 海外依存關係를 適切히 管理하기 위한 相互協調體制를 開發하자는 것을 基本趣旨로 하고 있다.

4. 地域協力의 必要性

太平洋協力論議와 關聯하여 提起되는 疑問의 하나는 太平洋國家들이 共通的으로 갖는 海外依存管理問題의 解決이 반드시 地域協力을 必要로 하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太平洋國家들이 갖는 앞의 여러가지 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汎世界的 接近方式이나 雙務的 接近方式이 아닌 地域單位의 多邊的 接近方式이 요구되는 理由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結論부터 말하자면 그 理由는 太平洋地域國家들의 海外依存關係에 있어서 특히 域內相互依存度가 높다는 사실과 域內國家間의 雙務的 協力에는 限界가 있다는 사실에 있다.

가. 貿易의 地域集中

太平洋國家間의 相互依存度가 높음은 우선 係數上으로 各國의 貿易構造에 잘 나타난다. 〈表 2〉에 의하면 輸出을 基準으로 하여 볼 때 1970年代初에 太平洋先進5個國은 總交易의 51%를 域內에 依存하였으며 아시아 NICs는 總交易의 65%를, ASEAN 4個國은 總交易의 74%를 域內에 依存하였다. 先進5個國 중에도 특히 美國은 總交易의 40%를 域內에 依存하였던 反面, 나머지 4個國의 域內交易依存度는

2) 이 점은 Krause(1980)에 詳細히 分析되어 있다. Krause & Sekiguchi(1980)는 70年代 太平洋地域國家間에 있었던 相互依存問題의 境遇를 分析한다.

〈表 2〉 太平洋地域國家間의 總商品輸出「매트릭스」$\binom{1979}{1970}$[1]

(단위 : 百萬美弗)

輸出國 \ 輸入國	美 國	日 本	CNA[2]	域內先進5個國	4 NICs[3]	韓 國	ASEAN4[4]	域內13個國[5]	EEC	OPEC	其 他	全世界
美 國	— —	6,635.7 1,721.7	27,987.9 8,213.3	34,623.6 9,935.0	6,002.6 756.2	3,734.8 528.8	3,203.2 496.2	43,829.4 11,187.4	26,724.9 6,530.6	11,413.5 1,302.5	33,875.7 8,365.9	115,815.1 27,385.4
日 本	24,198.4 5,016.3	— —	4,787.3 1,099.9	28,985.6 6,116.3	12,074.6 1,669.3	5,869.8 813.8	5,536.9 1,056.1	46,597.2 8,841.7	13,047.7 1,636.0	10,163.8 5,509.2	21,033.7 4,542.1	90,768.2 15,507.4
C N A	20,598.0 6,566.5	586.0 93.8	1,285.3 342.0	21,184.0 7,002.3	681.5 92.5	811.9 38.9	411.7 117.5	23,562.5 7,212.2	2,062.5 593.4	1,051.5 113.0	3,733.9 842.9	30,407.5 8,760.3
域內先進5個國	44,796.3 11,582.8	7,221.7 1,815.5	34,060.5 9,655.3	86,078.6 23,053.6	18,758.7 2,517.9	10,416.7 1,381.5	9,151.8 1,669.7	113,989.1 27,241.3	41,835.1 8,760.0	22,628.8 1,924.7	58,643.3 13,750.0	236,990.9 51,653.1
4 N I Cs	14,866.6 1,880.1	4,258.8 286.9	2,367.7 278.1	21,493.1 2,445.2	3,350.5 304.4	598.8 58.5	3,453.3 328.7	28,297.0 3,078.2	8,309.8 695.8	3,252.3 111.2	6,574.5 628.7	46,419.7 4,510.0
韓 國	4,360.8 411.7	2,998.4 209.9	556.1 28.1	7,915.2 649.6	888.5 49.1	— —	559.7 12.6	9,363.4 711.3	2,292.0 62.0	1,520.1 16.9	1,912.2 54.6	15,076.0 841.7
ASEAN 4	1,187.4 64.0	370.4 14.1	219.0 10.7	1,776.9 88.7	1,035.8 60.3	692.3 79.4	195.0 21.9	3,007.6 170.9	928.3 25.5	140.2 2.8	353.1 30.2	4,417.4 227.5
域內13個國	60,850.4 13,526.9	11,850.9 2,116.5	36,647.3 9,944.1	109,348.6 15,587.5	23,145.0 2,882.6	11,707.8 1,519.4	12,800.2 2,020.4	145,293.8 30,490.4	51,073.2 9,481.3	26,021.3 2,038.7	65,570.9 14,408.9	287,828.0 56,390.6

註 : 1) 위의 數字는 1979年値이고 아래의 數字는 1970年値임. 1970年値는 1969, 1970 및 1971年 統計의 平均値이고 1979年値는 1978, 1979 및 1980年 統計의 平均値임. 臺灣統計만은 當該年度値를 使用하였음.
2) 카나다, 濠洲 및 뉴질랜드
3) 싱가포르, 홍콩, 臺灣 및 韓國
4)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泰國 및 필리핀
5) 先進5個國, 4 NICs 및 ASEAN 4個國의 合計

資料 : UN테이프(KDI Data Base). 臺灣統計는 日本아시아經濟硏究所테이프로 補完

이보다 훨씬 높아서 日本은 總交易의 56%를, 카나다, 濠洲 및 뉴질랜드 3 個國은 總交易의 69%를 域內에 依存하였다.

〈表 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70年代를 거치면서 太平洋國家間의 相互交易依存度는 多少의 減少를 겪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原油價格昂騰으로 인한 對中東交易의 增大를 나타내는 現象이다. 〈表 3〉에는 主要域內國家群의 輸入에서 域內先으로부터의 輸入偏向이 얼마나 높은가를 나타내는 係數가 提示되어 있다. 太平洋國家間의 相互交易依存度가 相對的으로 높다는 사실은 〈表 3〉에도 잘 나타나 있다.

나. 資源賦存의 補完性

太平洋國家間의 相互依存的 貿易構造는 資源賦存上 域內國家間에 높은 補完性이 있다는 사실을 反映한다. 太平洋國家內에는 각종 資源이 풍부히 賦存되어 있다[3]. 各種一次產品의 경우 太平洋國家들은 原油 以外의 모든 產品을 自給自足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하게 保有하

〈表 3〉 太平洋地域國家間의 貿易偏重指數[1] (1979)

輸出國 \ 輸入國	北 美	濠洲 및 뉴질랜드	日 本	4 NICs	ASEAN 4
北 美	—	1.4(1.4)	1.2(1.6)	1.1(1.0)	1.0(1.1)
濠洲 및 뉴질랜드	0.6(0.4)	—	2.9(1.8)	1.5(1.6)	2.4(2.5)
日 本	1.3(1.4)	2.0(1.5)	—	3.1(3.0)	2.4(2.2)
4 NICs	1.6(1.8)	2.1(1.3)	1.7(3.2)	—	4.1(3.1)
ASEAN 4	1.1(1.6)	1.2(1.9)	4.3(3.1)	3.6(4.8)	—

註 : 1) 偏重指數 $= \frac{\text{輸入國의 輸出國輸出占有率}}{\text{輸入國의 世界輸入占有率}}$

2) ( )外의 數値는 全品目에 걸치고 ( )內의 數値는 工產品에만 걸치는 指數値임.

資料 : Anderson(1983).

〈表 4〉 아시아 NICs와 ASEAN 4個國 工產品輸出伸張率[1]

(단위 : 百萬美弗, %)

	1 9 7 0		1 9 7 9		1970~79
	金 額	總商品輸出占有率	金 額	總商品輸出占有率	年成長率
아시아 NICs	4,510.0	70.1	46,419.7	75.9	29.6
홍 콩	2,326.7	92.3	14,133.2	91.5	22.2
韓 國	648.3	77.0	12,304.3	81.6	38.7
臺 灣	1,093.3	73.3	13,511.4	84.0	32.2
싱가포르	441.7	27.3	6,470.8	44.4	34.8
ASEAN 4	227.5	5.1	4,417.4	12.0	39.0
인도네시아	13.4	1.3	359.3	2.2	44.2
말레이지아	106.3	6.4	1,898.8	18.1	37.8
필리핀	66.0	6.6	937.8	20.5	34.3
泰 國	41.9	5.6	1,221.5	23.1	45.5

註 : 基準으로 쓰인 1970年値와 1979年値는 각각 1969, 70, 71年 및 1978, 79, 80年의 平均値임. 단, 臺灣의 1979年値는 當該年度數値임.

資料 : UN貿易테이프(KDI Data Base). 臺灣統計는 日本아시아經濟硏究所테이프로 補完하였음.

3) PBEC Japan National Committee(1982)의 各種統計 參照.

고 있는 것이다. 특히 日本을 除外한 先進4個國과 泰國은 農水產物을, 그리고 이들 5個國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및 필리핀은 각종 工業原料를 全域內國家에 충분히 供給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反面에 日本 및 아시아 NICs는 天然資源의 賦存이 빈약한 대신 熟鍊勞動을 相對的으로 풍부히 가지고 있으며 또한 日本, 美國등의 先進國들은 技術과 資本을 풍부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資源賦存面에서 보아 域內市場國家 相互間의 協力基盤은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다. 競爭關係의 深化[4)]

太平洋國家間의 相互依存關係는 相互補完的일 뿐 아니라 相互競爭的인 면에 있어서도 깊다고 하겠다. 太平洋國家間의 相互競爭的 關係는 주로 아시아 NICs와 ASEAN 4個國의 급속한 工業化政策에 起因한다.

아시아 NICs가 輸出主導의 成長戰略을 성공적으로 追求하며 工業化를 急速히 이룩하여 온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表 4〉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ASEAN 4個國은 70年代에 걸쳐서 아시아 NICs를 훨씬 凌駕하는 工產品輸出增加率을 示顯하였으며 그 결과 이들의 輸出에서 工產品이 차지하는 比率은 급격히 提高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太平洋地域內의 ASEAN 4個國과 아시아 NICs 및 日本을 위시한 先進5個國 사이에 工產品分野에서의 競爭關係가 급속히 深化되고 있으며 이러한 傾向은 더욱 加速될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先後進國間의 이러한 '追上'(catch-up) 現象으로 인하여 域內國家間의 工業化段階上의 隔差는 持續的으로 緩和되어 갈 것이다.

ASEAN 4個國의 급속한 工產品輸出增加는 纖維, 衣類 및 雜製品과 電子部品 위주의 電氣機械에 의하여 主導되었다. 이들은 單純勞動集約的 製品들로서 60年代 아시아 NICs의 輸出伸張主導品들이었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ASEAN 4個國의 主宗輸出部門인 資源加工品(石油精製品, 食品, 가죽, 고무, 木製品, 종이 등)의 輸出占有率은 減少되어 왔다.

아시아 NICs의 輸出에서는 纖維, 衣類, 資源加工品 등 勞動集約的 製品이 여전히 主宗을 이루면서도 電氣 및 非電氣機械와 같이 보다 技能 및 技術集約的인 製品이 輸出增加를 主導하여 왔다. 이것은 日本이 60年代에 겪은 바 있는 現象이다.

全體的으로 보아 60年代 이후 太平洋地域에서의 先進工業國, 아시아 NICs 및 ASEAN 4個國 사이에 工產品內 比較優位의 移轉이 圓滑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고 하겠다. 즉 技能 및 技術集約的인 工產品에서의 比較優位는 先進工業國에서 新興工業國으로, 單純勞動集約的인 工產品에서의 比較優位는 新興工業國에서 ASEAN 4個國으로 移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過程에서 先進工業國의 比較優位는 新技術製品과 資本集約的 製品內에서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比較優位의 移轉은 향후 製品市場에서 相互競爭을 深化시켜 주는 同時에 開途國과 先進國 그리고 또한 ASEAN 4個國과 아시아 NICs 사이에 貿易政策과 產業政策상의 마찰을 漸增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바로 이러한 否定的인 의미에서의 相互依存關係가 太平洋地域國家間에 또한 存在하는 것이다.

4) Watanabe(1983) 및 楊秀吉(1983)의 詳細한 分析 參照.

라. 貿易自由化의 渴求

70年代初에 인플레등의 國內經濟問題 惡化와 第1次 石油波動을 겪으면서 擡頭된 先進國들의 이른바 新保護主義는 70年代末 이후의 長期不況과 開發途上國의 追上으로 인한 產業調整의 壓力下에 近者에 다시 强化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先進國들은 多者間纖維協定(MFA)에 의한 纖維輸入쿼터의 强化, 각종 自律輸出規制의 强化, 세이프가드의 빈번한 發動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非關稅貿易障壁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趨勢와 關聯하여 더욱 우려되는 것은 昨年 제네바에서 열렸던 GATT閣僚會談에서 이러한 趨勢를 反轉내지는 停止시키기 위한 具體的인 조치에 合意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現在의 保護貿易主義的 國際環境은 당분간 더욱 惡化될 것으로 期待되는 것이다.

近者의 이러한 保護貿易主義의 한 특징은 그 根源이 주로 유럽의 國家들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太平洋地域國家들은 美國과 日本을 위시하여 基本的으로 自由貿易을 指向하는 국가들이며 또한 그 중 아시아지역의 開途國들은 保護貿易主義의 强化로 인하여 經濟成長과 工業化努力에 대한 심각한 危脅을 겪는 나라들이다. 따라서 太平洋地域國家들은 유럽國家들과는 對照的으로 保護貿易主義의 沮止 내지 緩和를 渴求하는 입장을 共通的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다[5].

마. 南北協力의 雰圍氣

國際經濟問題의 대부분은 先後進國間의 소위 南北問題의 側面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意味에서 南北問題의 원활한 解決은 先後進 兩側의 繁榮과 國際經濟體制의 發展을 위하여 要求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國際聯合貿易開發會議(UNCTAD)는 바로 이러한 課題를 遂行하기 위한 汎世界的인 協力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設立되었던 것이나 汎世界的인 南北協力의 雰圍氣의 不在로 인하여 큰 成果를 못 보고 있는 것이다. 1次產品, 技術移轉, 資本協力 등에 걸친 南北協力次元의 問題들은 太平洋地域國家들 간의 相互依存關係의 重要한 斷面을 形成하기도 한다. 그런데 다행히도 他地域에서와는 달리 太平洋地域에서는 南北問題의 解決을 위한 協力의 展望이 매우 良好한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ASEAN 4個國으로 代表되는 域內開途國과 域內先進諸國과의 關係가 매우 友好的이라는 점과 또한 同地域에는 先後進 兩側의 橋梁役割을 할 수 있는 아시아 NICs가 있다는 점에 起因한다.

바. 多邊的 協力의 必要性

위에서 論議된 여러가지 地域協力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域內國家間의 雙務的 努力은 이미 最善으로 推進되고 있다는 意味에서 이러한 雙務的 努力은 限界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太平洋經濟協力體를 組織하자는 意圖는 이러한 雙務的 努力을 補完하고 또는 代替하여 雙務的 努力의 限界를 凌駕하는 效果를 達成하자는 데에 있다. 雙務的 努力에 의한 地域協力問題에의 接近은 論理的으로 域內國家間의 모든 雙務的 經路의 活用과 調整을 要求한다. 이러한 接近方式이 多邊的 對話에 비하여 非效率的인 것은 물론이다[6].

---

5) 이것은 Kim(1982)에 强調되어 있다.
6) Krause(1980)가 指摘한 바 있다.

5. 政治的 制約

太平洋經濟協力體의 主要構成員으로 想定되는 市場經濟國家들 사이에는 經濟面에서뿐 아니라 政治面에서도 공동의 利害關係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이들 모두가 소련의 膨脹主義에 危脅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市場經濟國家를 함께 묶은 太平洋協力體는 政治的 結束의 意義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太平洋協力體가 政治的 課題를 追求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러한 結束關係를 表出시키는 內容을 갖게 될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러한 理由로 인하여 太平洋協力體論議에서는 一切의 政治的 課題가 排除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所致는 한편으로는 太平洋地域에서 相互 牽制의 樣相을 보이고 있는 4大强國間의 軍事的 均衡을 위협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公式的으로 非同盟主義를 追求하고 있는 ASEAN 會員國의 反對를 불러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7].

Ⅲ. 地域協力論議의 略史

「수사스트로」博士(1983)는 太平洋經濟協力論議의 起點을 1960年으로 잡고 그 이후 同論議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세 期間으로 나누어 分析하고 있다. 첫째, 1960～67年의 期間에는 주로 日本內에서 日本人들에 의한 太平洋協力方案論議가 이루어졌다. 둘째, 1968～77年의 期間에는 域內 學術硏究界와 實業界人士들 간에 太平洋協力이란 槪念이 '國際化' 되었다. 끝으로, 1978年以後의 期間에는 太平洋協力推進運動이 展開되어 왔다. 이들 세 期間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8].

1. 1960～67年

戰後에 日本에서 太平洋地域協力을 제일 먼저 擧論한 사람은 自民黨출신의 「가지마 모리노스께」 日本 參議院 議員이다. 「가지마」議員은 1960年 參議院에서 아시아諸國의 發展을 위하여 日本이 마샬計劃類型의 아시아開發基金을 창설할 것을 提議하였던 것이다. 이와는 別途의 움직임으로 1963年 創設된 日本經濟硏究센타(Japan Economic Research Centre: JERC)는 同센타의 첫번째 보고서에서 太平洋經濟協力을 論하면서 5개 太平洋先進國이 年例會議를 열고 經濟關係, 交通 및 通信, 文化交流등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1965年 11月에는 JERC主催의 國際會議에서 「고지마 기요시」敎授가 太平洋自由貿易地帶(Pacific Free Trade Area: PAFTA)의 結成을 提議한 바 있다. 이 提議에 자극을 받아 1967年 5月 「미끼 다께오」外相은 太平洋地域國家間의 協力增進을 위한 日本의 亞洲太平洋政策의 必要性을 역설한 바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된 JERC 보고서에 자극되어 日本과 濠洲의 實業人들은 1967年 4月 域內의 貿易 및 投資에 관한 문제를 論議하고 官民協力을 促進하기 위하여 先進5個國의 實業人들을 會員으로 하는 소위 太平洋經濟人協議會(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 PBEC)를

7) Dickson(1983) 및 Fraser(1983) 參照.
8) 以下 Soesastro(1983)에 주로 依存함. 또한 English (1982)를 參照하였음.

조직한 바 있다. 域內開途國의 實業人들은 1975年以後 PBEC에 參與하기 시작하였다.

2. 1968～77年

日本「미끼」外相의 1967年 亞洲太平洋政策構想은 實現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는 1968年 5月 日本의 亞洲太平洋地域公館長會議를 召集하고 亞洲太平洋블럭의 結成을 위한 4個 條項으로 된 政策을 발표한 바 있다. 이때 「미끼」外相이 提示한 政策目標의 하나는 日本이 太平洋地域의 先進國과 東南亞諸國사이의 橋梁的 役割을 하겠다는 것이었으며 이때부터 日本은 東南亞諸國과의 關係에 本格的 關心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1967年 ASEAN의 發足으로부터 자극받았던 結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후 日本은 公式的으로 ASEAN과의 協力增大를 위한 接近을 展開하여 왔다.

1977年 「후꾸다」首相은 東南亞를 순방하고 日本과 ASEAN諸國間의 理解와 友誼增進을 위한 소위 「후꾸다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1968年이후 日本은 公式外交經路를 통하여 日本과 ASEAN諸國사이의 協力關係를 構築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日·ASEAN 關係가 亞洲太平洋地域內에서 가장 중요한 關係의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1968年 以後 域內學者들 간에는 太平洋經濟協力槪念의 토론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미끼」外相의 支援下에 「고지마」敎授의 主管과 JERC主催로 1968年 1月 처음 召集되었던 太平洋貿易開發硏究會(Pacific Trade and Development Conference: PAFTAD)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PAFTAD는 〈表 5〉에 보인 바와 같이 年例的으로 召集되어 太平洋地域의 經濟問題를 討議하여 왔으며 이러한 過程을 통하여 PAFTAD는 域內經濟學者들간의 地域社會를 造成하여 주는 동시에 太平洋經濟協力의 槪念을 普及시켜 왔다.

「고지마」敎授의 PAFTAD案은 PAFTAD 1次會議에서 詳細히 檢討된 바 있었으며 처음부터 支持를 얻지 못하였다. 그 대신 1977年

〈表 5〉 PAFTAD會議 槪要

	會議場所	새로운 參加國들	主 題
1968	東 京	先進 5個國	PAFTAD案
1969	호 놀 루 루	인도네시아, 韓國, 필리핀, 臺灣	아시아太平洋 開途國들의 役割
1970	시 드 니	泰國	아시아·太平洋地域의 海外直接投資
1971	오 타 와	홍콩, 싱가포르	太平洋地域의 貿易障壁
1973	東 京	멕시코	아시아·太平洋地域의 貿易構造調整
1974	멕시코시티	브라질, 페루, 베네주엘라, 蘇聯	太平洋經濟開發과 技術移轉
1975	오 클 랜 드	파푸아뉴기니아, 피지	아시아·太平洋地域의 開發協力
1976	파타야(泰國)	印度, 말레이지아	아시아開途國의 貿易과 雇傭
1977	샌프란시스코	칠 레	太平洋地域의 鑛物資源
1979	캔 베 라	中 共	世界 및 地域與件의 變化와 ASEAN
1980	서 울		太平洋地域 先發開途國의 役割
1981	뱅 쿠 버		太平洋地域의 農水産資源
1983	마 닐 라		太平洋地域의 에너지

資料 : English(1982) 및 Soesastro(1983).

PAFTAD會議에서는 濠洲「드라이스데일」敎授의 太平洋貿易開發機構(Organization for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 OPTAD)案이 제시된 바 있으며 그 이후 OPTAD案은 상당한 지지를 얻어왔다.

3. 1978年 以後

1978年부터는 太平洋經濟協力에 대하여 公式的인 關心이 表明되기 시작하고 또한 太平洋經濟協力을 實踐에 옮기려는 氣運이 擡頭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1978년 美國에서는 上院外交分科委員會의 「글렌」議員의 要請에 의하여 美議會圖書館調査部가 「패트릭」과 「드라이스데일」 兩敎授에게 아시아地域貿易機構의 可能性에 관한 硏究를 委託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79年에 提出한 硏究報告書에서 두敎授는 1977年 「드라이스데일」의 OPTAD案을 다시 提議하였던 것이다.

또한 1978年에 日本의 新任 「오히라」首相은 「오끼따 사부로」博士가 主導하는 環太平洋連帶硏究그룹을 設置하여 環太平洋協力構想(Pacific Basin Cooperation Concept)을 硏究시켰다. 이어 1979年에 濠洲의 「프레이저」首相은 UNCTAD總會에서 太平洋經濟協力槪念에 대한 支持意思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1980年 1月 「오히라」首相이 「프레이저」首相을 訪問한 자리에서 두 首相은 太平洋協力槪念을 檢討하기 위한 民間次元의 域內세미나를 主催할 것에 合意를 보게 되었다. 그 結果 1980年 9月에는 濠洲政府主催로 이른바 太平洋協力體세미나(Pacific Community Seminar)가 캔베라에서 開催되었던 것이다. 이 세미나는 원래 日本의 環太平洋連帶硏究그룹이 準備하고 있던 環太平洋協力構想報告書內容에 立脚하여 發想되었다. 그리고 同캔베라세미나는 第V章에서 詳細히 論議될 太平洋經濟協力會議를 組織하는 契機가 되었던 것이다.

1980年 以後에는 또한 美國(1980), 日本(1980), 韓國(1981), 泰國(1982), 카나다(1982) 등의 主要域內國家內에 各國의 太平洋協力關聯活動을 調整하고 推進하기 위한 有關人士들의 모임이 組織되어 왔다. 이러한 民間次元의 움직임은 캔베라세미나로 인한 刺戟의 結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캔베라세미나以後의 期間에 公式次元에서는 韓國 全斗煥大統領의 太平洋外交가 主要 움직임으로 擡頭되었다. 그 一環으로 全大統領은 1981年 1月 美國의 「레이건」大統領을 訪問한 자리에서 「太平洋時代」의 到來를 宣言하고 太平洋地域國家間의 協力의 重要性을 强調하였다. 또한 全大統領은 1981年 4月 뉴질랜드의 「멀둔」 首相과의 會談에서, 그리고 同年 5月 ASEAN會員國들을 巡訪하면서 다시 太平洋協力의 重要性을 力說한 바 있다.

以後 濠洲 및 카나다首相과의 頂上會談에서 그리고 또한 1982年 8月 鎭海記者會見에서 全大統領은 太平洋頂上會談을 正式 提議한 바 있다. 이 提議는 全大統領이 그간 太平洋外交를 통하여 提示하여 온 「太平洋독트린」에 대한 具體的 接近方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比重이 큰 太平洋國家인 美國의 政府는 그동안 太平洋協力論議에 대하여 가장 微溫的인 態度를 보여왔으며 이러한 美國政府의 態度는 太平洋協力推進에 가장 큰 障碍要因으로 看做되어 왔었다[9]. 이러한 점에서 太平洋

9) Dickson(1983).

地域國家들 사이에 싹트는 地域社會意識을 分析하고 太平洋地域協力推進에서 美國의 役割이 重要함을 力說한 「슐츠」美國務長官의 1983年 3月 샌프란시스코 演說은 매우 意味深長하다고 하겠다[10]. 이 演說은 韓國을 包含하는 東北亞訪問直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또한 注目할 만하다.

Ⅳ. 地域協力體의 構想과 爭點

本節에서는 主要 地域協力體案으로서 PAFTA案, OPTAD案, 環太平洋連帶構想 및 太平洋頂上會談案을 個別的으로 分析하고 主要 爭點을 評價하기로 한다.

1. 「고지마」敎授의 PAFTA案[11]

「고지마」敎授가 構想한 PAFTA는 日本, 카나다, 美國, 濠洲 및 뉴질랜드의 域內 5個先進國을 會員國으로 하는 先進國間의 相互貿易增進機構인 동시에 域內의 아시아開發途上國들의 經濟發展과 貿易擴大를 위한 地域單位의 對開途國支援機構이다. PAFTA會員國들은 相互貿易增進을 위하여 對內的으로 貿易障壁을 撤廢하고 太平洋域內 開途國들의 貿易增進을 위하여 市場을 移轉하여 주자는 것이다.

「고지마」敎授가 말하는 對開途國 市場移轉은 開途國으로부터의 農水產物 및 勞動集約的 工產品 輸出에 대한 需要를 確保, 擴大하여 주고 아울러 이들 部門에서 開途國의 生產能力을 늘려주기 위한 資本 및 技術協力을 提供하는 것을 말한다. 開途國의 輸出에 대한 需要를 擴大하는 方法으로는 農水產物 및 勞動集約的 工產品에 대한 先進國의 生產 및 輸出 自制와 對開途國市場開放, 그리고 이에 相應하는 先進國內 產業構造調整이 提示되고 있다.

이처럼 「고지마」敎授가 提案한 PAFTA는 太平洋地域先進國 相互間의 貿易政策 및 太平洋地域開發途上國에 대한 貿易政策의 共同調整을 主要經濟協力內容으로 하는 先進國爲主의 地域經濟協力體이되 특히 太平洋域內의 貿易增進과 域內開途國과 先進國사이의 均衡있는 經濟發展을 政策目標로 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고지마」敎授의 PAFTA 構想은 1960年代에 있었던 主要 유럽國家間의 EC結成 및 EC內의 關稅撤廢履行에 대한 反應이었다. 즉 유럽에서의 對內指向的인 經濟블럭의 形成으로 인한 貿易 및 投資上의 轉換(diversion)을 可能한 한 相殺하고 나아가서는 汎世界的 貿易自由化를 推進하기 위한 「모우멘텀」을 確保하자는 것이 PAFTA構想의 動機인 것이다. 「고지마」敎授는 兩大自由貿易블럭의 併存이 이들 블럭의 排他性에도 不拘하고 向後의 汎世界的 貿易自由化 움직임으로 連結될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실상 「고지마」敎授의 PAFTA構想의 低邊에는 世界市場經濟圈의 兩大블럭化의 構想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그 以後 EC의 擴大(1973)와 로메協定(1975)등을 통한 EC圈의 對開途國圈擴張으로 실현된 바와 같은 유럽經濟블럭의 擴大를 「고지마」敎授는 豫想하고 있

10) Schultz(1983) 參照.
11) Kojima(1966), Kojima(1971) 第3章과 第7章 및 Kojima(1977) 第8章 參照.

었고 PAFTA를 통한 太平洋地域內의 先·後進國間 經濟開發協力提議는 이러한 豫想에 立脚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볼 때에 「고지마」敎授의 PAFTA構想은 극히 汎世界的이고 對外指向的인 면을 갖고 있었다.

汎世界主義的 視角이 강했던 만큼 「고지마」敎授의 PAFTA案에 담겨진 地域社會意識은 消極的이고 制限的인 것이다. 이것은 PAFTA會員國이 太平洋地域의 5個先進國으로 構成된다는 사실에 反映된다. 즉, 「고지마」敎授가 想定한 太平洋地域은 先進國들이 主導的으로 經營하는 地域이며 이러한 地域經營이 必要해진 理由는 域外先進圈의 블럭化였던 것이다.

「고지마」敎授의 이와 같은 PAFTA構想은 提案直後부터 過慾的이며 現實性이 없는 案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12]. PAFTA構想에 대한 이러한 評價는 누구보다도 「고지마」敎授 自身에 의하여 내려졌다[13].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美國의 對外經濟政策이 汎世界的 無差別的 貿易自由化의 追求를 大前提로 하고 있기 때문에 美國이 地域單位의 貿易自由化를 支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고지마」敎授는 유럽經濟의 對內指向的 블럭化가 더욱 進展되고 汎世界的 貿易自由化의 展望이 크게 惡化되면 美國의 立場에 變化가 올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고지마」敎授의 이러한 分析이 있은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오늘날 아닌게 아니라 이와 같은 域外與件의 變化가 오고 있는 것은 意味深長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貿易障壁의 撤廢가 圓滑히 推進되기 위해서는 政策樹立體系와 產業構造上의 國家間 統合이 지금보다 훨씬 더 進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PAFTA의 5個會員國이 市場을 相互 開放함으로 해서 생기는 農業, 勞動集約的 輕工業등과 같은 主宗分野에서 惹起되는 여러가지 產業調整問題가 잘 解決되려면 이들 國家사이의 連帶意識이 더욱 鞏固하고 產業構造가 보다 類似하며 國家間 資本, 技術, 人力 등의 移動性이 크게 提高되어야 한다. 따라서 域內貿易障壁撤廢가 當場에는 그만큼 過激한 措置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세째, PAFTA의 形成으로 인한 惠澤을 輸出增加 및 國際收支效果로 把握해 볼 때 그 惠澤의 國家間 配分이 크게 不均等할 것으로 期待되는 바 이러한 期待는 國家間에 違和感을 造成하여 PAFTA 結成에 대한 抵抗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다.

貿易障壁 撤廢에 대한 需要供給彈性値는 品目마다 달라 貿易障壁撤廢로 인한 輸出入의 增減도 品目마다 다르기 마련이다. 太平洋地域의 先進 5個國은 資源賦存與件과 工業化段階가 서로 크게 다른 편이다. 따라서 各國의 輸出入構造도 크게 다르기 마련이며 또한 域內貿易依存度도 國家마다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相互貿易障壁의 撤廢로 인한 惠澤은 不均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日本은 PAFTA의 結成으로부터 가장 큰 惠澤을 누릴 것으로 期待된다. 우선 日本의 輸出品은 關稅에 대한 需要彈性値가 높은 工產品으로 構成된다. 반면에 日本의 輸入品의 대부분은 一次產品들로서 이들은 需要彈性値가 극히 낮은 것이다. 또한 日本의 域內輸出入依存度는 相對的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12) 이것은 예컨대 Drysdale(1978), Crawford(1981) 등에 表明되어 있는 見解이다.
13) Kojima(1971) 第3章 參照.

따라서 日本은 PAFTA의 結成에 따라 輸出의 대폭 伸張과 國際收支의 큰 好調를 볼 것으로 豫想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理由를 받아들인 「고지마」敎授는 PAFTA結成이 時期尙早일진대 當面한 課題는 이의 早期實現을 促進하기 위한 與件造成에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當面課題의 內容을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로 整理하였다.

(1) 域內先進國의 對域內開途國 資本移轉增大
(2) 先進國間의 重化學工業內 水平分業과 效率的인 域內 資源 및 中間財 生產과 交易促進
(3) 太平洋地域內 開途國의 利害關係의 考慮에 따른 先進國內 農產品 生產調整
(4) 太平洋地域內 開途國에게 輕工業製品市場을 移轉하기 위한 先進國內의 投資調整 및 市場開放
(5) 先進國의 對域內開途國援助政策 調整

「고지마」敎授는 또한 이러한 課題의 實踐을 위한 첫 段階의 制度化作業으로서 太平洋先進5個國이 相互貿易에 對한 貿易自由化 規約, 相互投資活動에 關한 規約, 對開途國援助 및 貿易政策規約등 3個規約을 採擇 遵守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貿易, 投資 및 援助의 3分野에 걸친 3個委員會로 構成되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類型의 太平洋貿易開發機構, 즉 OPTAD를 結成할 것을 提案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고지마」敎授의 OPTAD案을 PAFTA案과 比較하여 볼 때 PAFTA의 主眼點이 域內先進國 相互間의 貿易障壁撤廢에 있었던 것에 비하여 OPTAD의 主眼點은 域內先進國貿易障壁의 一般的 緩和와 對域內開途國協力增進에 있다.

「고지마」敎授의 構想이 域內先進國을 爲主로 하여 發想되었던 것은 當時의 時代的 與件에 비추어보아 當然하다고 할 수 있다. 즉 當時 域內의 開途國은 아직도 工業化의 初期段階를 마악 시작하여 國際經濟上의 比重이 微微하였으며 域內先進國의 對外關係는 OECD圈內에 置重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70年代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狀況에는 많은 變化가 오게 된다. 이러한 變化에 맞추어 提示되는 것이 「드라이스데일」-「패트릭」 兩敎授의 OPTAD案이다.

2. 「드라이스데일」과 「패트릭」 兩敎授의 OPTAD 案[14]

「고지마」敎授가 提案한 PAFTA과 OPTAD와는 달리 「드라이스데일」-「패트릭」의 OPTAD는 域內의 先進5個國과 ASEAN 5個國, 韓國 및 파푸아뉴기니등의 南太平洋諸島를 모두 包含하는 本格的인 太平洋地域規模의 構想이다.

具體的으로 「드라이스데일」-「패트릭」의 OPTAD는 數個의 機能別 專門委員會(Task Force)와 이들을 運營하는 小規模의 事務局으로 構成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OPTAD의 課題는 太平洋地域國家間의 貿易, 投資, 援助등의 急增을 隨伴하는 諸般地域政策問題를 多邊的 機構內에서 協議함에 있는 바 이러한 協議의 具體的 目的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첫째, 友好的인 雰圍氣아래 地域國家間의 높

14) Drysdale(197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1979), Chung(1981) 및 Soesastro(1983) 參照. Krause(1980)도 OPTAD案과 類似한 主張을 내세운다.

은 相互依存度로 인하여 惹起되는 마찰에 대한 安全瓣을 마련한다.

둘째, 域內開途國에 대한 援助와 投資를 促進함과 동시에 이들과 域內先進國間의 關係를 改善한다.

세째, 太平洋地域의 長期展望과 經濟發展에 관한 協議와 討議를 마련한다.

네째, 太平洋地域의 各國이 域內에서 보다 局地的인(subregional) 經濟協力을 追求하거나 또는 隣近共產國과 關係增進을 追求할 경우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여 줄 수 있는 틀과 背後紐帶를 마련한다.

「드라이스데일」-「패트릭」의 OPTAD構想은 다음과 같은 域內外 變化에 대한 反應이었다.

우선, 日本經濟力의 伸長은 아마도 1960~70年代 太平洋地域에서 가장 顯著했던 現象인 바이에 따라 資源과 食糧, 그리고 勞動集約的工產品에 대한 日本의 需要가 急增하여 왔고 또한 域內資本과 技術의 移動도 活潑하여졌다.

둘째, 對外指向的 經濟發展戰略 및 日本의 成長에 힘입어 東北亞 및 東南亞의 開發途上國들이 늘라운 貿易伸張 및 工業化를 이룩하였다.

세째, 西歐의 經濟沈滯로 인하여 域外市場의 活力이 低下되고 있다.

「고지마」敎授의 OPTAD構想이 域外의 變化에 대한 反應이었다면 「드라이스데일」-「패트릭」의 OPTAD는 주로 域內의 變化, 특히 相互依存의 深化에 대한 反應이었다. 따라서 「드라이스데일」-「패트릭」의 OPTAD의 主目的은 域內相互依存의 增加로 인한 마찰을 豫防내지 緩和하자는 데에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全域內 國家를 對象으로 하는 經濟全般에 걸친 政策協議를 推進하자는 것이다. 바로 이런 面에서 「고지마」敎授의 OPTAD와 「드라이스데일」-「패트릭」의 OPTAD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드라이스데일」-「패트릭」의 OPTAD案은 相互依存 地域協力의 基盤으로서 經濟的 相互依存關係와 市場機能에 立脚한 公開的 多邊的 競爭原理에 대한 共通된 信念을 强調하고 있다. 위에 羅列한 바와 같은 12個會員國은 이러한 基準으로 選定된 것이다.

本案에서 臺灣과 홍콩은 원래 會員國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이들을 完全한 國家로 取扱하는 데에는 政治的 問題가 따르는만큼 이들은 옵저버로 參與하는 것으로 提案되어 있다.

中共을 위시한 太平洋沿岸의 共產主義國家들은 물론 會員國圈에서 除外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과의 交易擴大가 OPTAD의 課題로 提示되고 있는 것은 注目할 만한 사실이다. 對共產圈交易에 관한 協議體機能을 마련하여 주고 나아가서는 共同의 接近戰略을 마련하여 주는 것은 OPTAD의 緊要한 機能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趣旨이다. 이것은 美國을 위시한 太平洋沿岸의 많은 市場經濟國家들이 中共 등과의 交易擴大에 關心을 갖고 있음을 反映하고 있다.

OPTAD와 OECD사이의 차이점의 하나는 OPTAD의 主要關心部門의 하나가 南北問題라는 것이다. OECD와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OPTAD가 機能과 組織上의 簡素化를 追求한다는 것이다.

「드라이스데일」-「패트릭」의 OPTAD案은 具體的으로 6個에 不過한 專門委員會를 例示하고 있다. 이들 專門委員會는 會員國의 政府

官吏 및 民間專門家들로 構成되며 그 任務는 高次元의 政治的 協議過程을 거쳐 委任되는 特定政策課題에 관하여 情報와 아이디어를 交換하고 나아가서는 政策協商을 推進하는 것이다.

「드라이스데일」-「패트릭」이 提示한 6個專門委員會의 機能은 아래와 같다. 여기에 提示되는 바와 같은 政策課題는 대체로 貿易秩序의 問題와 南北問題 그리고 東西問題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留意할 만하다.

- 自由公正貿易 : 不正 및 不公正行爲를 規制하고 各國政府의 自由公正貿易保障能力을 强化하여 주는 企業行爲規約 開發
- 貿易構造調整 : 域內國家間 比較優位의 變化에 對處하여 產業構造調整을 圓滑히 하고 市場開放을 維持하도록 함.
- 地域開發財政 : 域內開途國에 대한 先進國資本의 供給이 圓滑히 維持되도록 함.
- 外國人直接投資 : 外國人直接投資規約制定등을 통하여 投資國과 被投資國 兩側의 利益을 보호함과 동시에 先進國間의 公平한 投資機會를 保障하도록 함.
- 資源安定供給 : 域內國家相互間의 에너지 安定供給協力을 增進하고 域內의 天然資源 및 에너지政策에 관련된 問題를 論議하며 域內開途國을 위한 STABEX(一次產品輸出所得安定化計劃)의 導入 檢討.
- 對共產圈貿易 : 開途國의 域內共產國家와의 貿易에 관한 協議 및 調整 推進

지금까지 檢討한 바와 같은 OPTAD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두고 懷疑가 表示된 바 있다[15].

우선, 아시아·太平洋地域에는 OPTAD와 機能이 크게 다르지 아니한 아시아·太平洋經濟社會委員會(ESCAP)가 域內의 經濟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1948년 設立된 이후 運營되어 오고 있으나 별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OPTAD가 ESCAP보다 實效性있게 運營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 貿易障壁은 GATT를 통하여 緩和되게끔 되어있다. 똑같은 目的을 위하여 GATT와는 別途로 OPTAD가 擔當할 수 있는 役割은 무엇인가? 또한 STABEX에 대해서도 美國은 汎世界主義에 立脚하여 UNCTAD를 통하여 解決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美國의 立場에서 볼 때에 OPTAD는 STABEX를 協議하는 以上의 機能을 擔當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OPTAD는 결국 政策協議機構以上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太平洋地域의 主要國家인 5個先進國이 이미 OECD를 통하여 相互 政策協議을 持續하여 오고 있는 이상 OPTAD의 効用은 그리 클 수가 없지 않겠는가?

세째, OPTAD는 별다른 惠澤을 가져오지 않는 反面 世界經濟의 블럭化를 助長하여 GATT, IMF등에 의한 汎世界的 問題解決方式을 弱化시킬 수도 있지 않는가?

위의 OPTAD案 批判과 關聯하여서는 第Ⅱ章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GATT, UNCTAD와 같은 汎世界的 協力機構가 無力化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機構를 支援하고 强化하자는 것이 太平洋協力推進의 한 動機가 되고 있음을 想起하여야 할 것이다.

「드라이스데일」—「패트릭」의 OPTAD案에 대해서는 아직껏 아무런 政府次元의 反應이 없었다. 그러나 OPTAD案이 提示된 以後 이 案은 太平洋協力體의 模型으로서 가장 普遍的

1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1979) 參照.

으로 擧論되어 오고 있다.

3. 日本研究그룹의 環太平洋連帶構想

「오히라」首相에 의하여 設立된 日本의 環太平洋連帶研究그룹이 提示한 環太平洋連帶構想은 協力體의 構想이라기보다는 協力課題의 羅列이다. 그러나 이러한 點에 있어서 이 構想은 地域協力體結成이 당분간은 現實性이 없다는 默示的 主張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이 構想의 意義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日本研究그룹은 經濟發展 및 協力의 높은 潛在力과 域內國家들의 多樣性을 太平洋地域의 2大 特色으로 보았다. 地域協力體結成 可能性에 대한 懷疑는 經濟發展段階, 人種, 文化, 宗敎등에 걸친 多樣性이 쉽게 克服될 수 없는 主要 障碍가 된다는 認識에 起因한다.

결국 日本研究그룹에 의하면 地域協力體結成은 時期尙早이며 오히려 相互依存意識 또는 地域社會意識의 形成自體가 先決되어야 할 當面課題인 것이다. 이에 따라 日本研究그룹이 提示하는 太平洋協力課題중에는 文化交流, 敎育交流, 學術交流, 觀光등의 國際交流를 통한 相互理解의 增進이 最優先課題로서 包含되어 있는 것이다.

日本研究그룹의 結論은 太平洋協力이 漸進的인 合意形成過程을 통하여 推進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서는 첫단계 事業으로서 域內 民間指導級人士中心의 國際會議를 통한 協議가 反復되어야 하고 이러한 事業을 推進하려면 이를 위한 常任委員會가 우선 設立되어야 한다는 것이 同 研究그룹의 主要 建議內容이었다.

이러한 會議를 거치는 過程에서 參加國들은 쉬운 分野에서부터 協力課題를 選定하여 이를 推進하기 위한 分野別 實務委員會를 構成하여 나아감으로써 太平洋協力을 造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日本研究그룹의 이러한 結論과 建議는 캔베라세미나에서 檢討되었으며 日本이 提示한 이와같은 環太平洋連帶造成 戰略은 同세미나에서부터 始發된 太平洋經濟協力會議活動의 基本趣旨가 된다. 日本研究그룹의 環太平洋連帶構想은 이러한 점에서 意議가 큰 構想이다.

4. 全大統領의 太平洋頂上會談案[16]

全大統領의 太平洋頂上會談案은 貿易과 開發등에 걸치는 非政治的 分野에서 協力을 推進함으로써 太平洋地域의 安定과 發展을 도모하는 것을 目標로 提示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여러 가지 太平洋經濟協力構想과 同質性을 갖는다. 그러나 이 提案은 우선 太平洋協力을 위한 政府次元의 最初의 具體的 提案이라는 점에서 特色이 있는 것이다.

그간 太平洋協力을 推進하자는 수많은 非公式的 혹은 民間人士의 提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域內各國의 政府는 傍觀의 立場을 취하여 왔으며 一角에서는 政府의 이러한 態度로 인하여 太平洋協力運動의 「모우멘텀」이 喪失될 것을 憂慮하고 있었다[17]. 全大統領의 頂上會談提議는 域內各國政府로 하여금 域內에서 造成되고 있는 太平洋協力의 氣運을 明白히 認識하고 나아가서는 政府로 하여금 太平洋協

16) 外務部(1982, 1983) 參照.
17) 外務部(1983) 參照.

力에 대한 立場과 對策을 開發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함으로써 이러한 膠着狀態를 打開시켜 주었던 것이다.

全大統領의 太平洋頂上會談案에 있어서 또 하나의 意味深長한 점은 本提案이 默示的으로 太平洋協力의 推進役으로서 美國 또는 日本과 같은 先進國에 대한 代案으로서 韓國을 提示하고 있다는 事實이다[18]. 인도네시아를 위시한 東南亞諸國은 弱小國이라는 自我意識과 과거에 經驗한 植民主義에 대한 恐怖로 인하여 先進國 특히 美國, 日本과 같은 强大國의 接近에 대하여 깊은 疑懼心과 警戒心을 갖고 있는 것이 事實이며 이러한 事實로 인하여 美國과 日本등의 域內先進國은 太平洋協力을 先導하기에는 不適合한 立場에 처해 있는 것이다[19].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 韓國과 같이 經濟的 動機가 明白하고 ASEAN諸國과 同病相憐의 立場에 있는 中進國은 先進國과 開途國의 仲介者로서 太平洋協力을 先導하여 나아가기에 매우 適合한 立場에 있는 것이다.

太平洋協力論議에서 가장 자주 擧論되는 것 중의 하나가 會員國의 範圍問題이다. 中共을 위시한 社會主義國家를 參加시켜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이 問題의 核心이다[20]. 太平洋頂上會談案의 또 하나의 特徵은 同會談을 太平洋地域의 모든 나라에게 開放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것은 同會談案에 대한 不必要한 批判과 疑懼心을 排除하기 위한 提議이며 특히 韓國特有의 立場에 適合한 提議인 것으로 解釋되고 있다. 그러나 會員國問題가 모든 太平洋協力論議에서 回避할 수 없는 實在的 問題인 만큼 이러한 提議는 暫定的 便法에 지나지 않는다는 批判도 없지 않다[21].

「드라이스데일」-「패트릭」의 OPTAD案은 域內政策協議體라는 制度의 提案인 反面 이러한 制度의 設立이 과연 可能한 것인가 또는 어떠한 方式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日本硏究그룹의 環太平洋連帶構想은 協力의 現實性을 中心問題로 보고 現實性 있는 協力課題를 찾아나가기 위한 民間協議活動을 提案하고 있다. 全大統領의 太平洋頂上會談案은 域內協力課題를 찾아나가기 위한 政府間協議活動을 提案하고 있다는 점에서 日本의 環太平洋連帶構想과 對照될 수 있다.

太平洋頂上會談案이 性格上 協力手段(政策)을 保有하고 있는 政府사이의 協議活動이라는 점에서 이 提案은 太平洋經濟協力會議와 같은 民間協議活動보다 한걸음 나아가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점은 또한 太平洋頂上會談의 早速한 實現에 障碍要因이 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政府間協議 특히 國家元首사이의 協議가 뚜렷한 行動으로 歸結되지 못할 境遇 모처럼 造成되고 있는 太平洋協力運動의 活力이 消滅되어버릴 危險을 內包하고 있다는 見解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頂上會談은 상당한 準備作業을 必要로 하는 提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見地에서는 太平洋經濟協力會議와 같은 準備段階性格의 民間協議活動과 頂上會談推進은 매우 密接한 補完的 關係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 外務部(1983) 參照.
19) Dickson(1983).
20) Dickson(1983).
21) Dickson(1983) 및 外務部(1983) 參照.

5. 太平洋協力論議의 主要爭點[22]

가. 安保關係

太平洋地域協力論議에서 政治的 課題가 意圖的으로 排除되고 있음은 앞에서 이미 言及한 바 있다. 그러나 自由市場國家間의 어떠한 非政治的 協力도 安保的 意義를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域內國家間의 安保的 利害關係는 非同盟主義를 내세우는 ASEAN會員國들의 消極的인 反應을 불러 일으키는 重要 要因의 하나이다.

政治와 經濟協力이 區分되기 힘든 좋은 例가 域內 海路保障問題의 경우이다[23]. 海路保障은 太平洋沿岸國家의 交易과 繁榮의 前提條件이 되는만큼 중요한 域內經濟協力課題의 하나이다. 그러나 海路保障은 海上安保의 問題이기도 한 것이다.

나. 會員國問題

설령 太平洋協力의 初期에는 社會主義國家를 參與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臺灣을 參與시켜야 할 것인가하는 問題는 큰 爭點이 된다. 臺灣의 參與는 두가지의 問題를 수반한다. 첫째 中共은 멀지않은 장래에 太平洋地域의 主要 交易相對國으로 登場할 것이며 太平洋協力體는 中共을 受容할 態勢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비추어 臺灣을 會員國으로 받아들이는 現在의 決定은 後日의 問題를 야기할 것이다. 둘째, 臺灣을 會員國 또는 옵저버로 받아들인다는 사실 자체가 臺灣의 稱號에 관한 決定을 前提로 하며 이 점에 있어서 中共과 臺灣 兩者를 滿足시키는 決定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다. 課題의 優先順位

OPTAD는 基本的으로 政策協議體인 바 이러한 政策協議體가 과연 政策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큰 의문으로 提起될 수 있다. ASEAN國家들은 보다 實質的인 政策協力體를 選好한다. 이들은 南北問題의 解決을 地域協力의 最優先課題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觀點에서 이들은 基本的으로 所得再分配機能을 갖는 政策協力體에 흥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太平洋協力體가 다른 機能과 아울러 이러한 機能을 함께 갖지 못할 理由는 없다. 그러나 만약에 ASEAN國家들이 對開途國 關稅免除와 같이 GATT의 無差別主義에 어긋나는 特惠를 要求한다면 意見對立의 餘地가 큰 것이다[24].

라. 美國의 微溫的 態度

太平洋地域의 最强大國인 美國의 參與가 없는 協力論議는 空虛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美國은 傳統的으로 太平洋國家들을 하나의 地域으로 認識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綜合的이고 一貫性있는 對아시아 내지는 對太平洋政策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批難을 받고 있다. 반면에 美國은 地域協力을 主導함으로써 覆權主義를 追求하는 印象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自制하여야 하는 立場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

22) Morrison & Miyashiro(1980), Crawford(1981) 內 Introduction, 高大亞細亞問題硏究所(1982), 外務部(1983), Dickson(1983) 및 Soesastro & Han(1983) 參照.

23) Dickson(1983).

24) Sycip(1983)은 바로 이러한 差別的 關稅協力을 提議하고 있다.

마. ASEAN의 消極性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非同盟主義를 追求하고 覇權主義를 경계하는 立場에 있는ASEAN 會員國들은 太平洋協力에 대하여 매우 消極的인 態度를 취하고 있다. 또한 ASEAN會員國은 ASEAN을 통한 共同利益의 追求를 對外協力의 至上課題로 삼고 있기 때문에 太平洋協力이 ASEAN의 機能을 弱化시킬 수 있는 可能性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V. 太平洋經濟協力會議의 活動과 意義

캔베라세미나에서 組織된 太平洋經濟協力會議는 主要太平洋地域國家들의 非公式代表들이 모여 太平洋協力問題를 論議하는 모임으로 紹介될 수 있다[25].

캔베라세미나의 目的은 「오히라」首相과 「프레이저」首相의 共同聲明에서 밝힌 바와같이 太平洋協力槪念에 관한 細部的이고 自由로운 意見交換에 있었다. 同세미나에는 域內先進5個國, ASEAN 5個國 및 韓國 등 11個國의 代表團과 파푸아뉴기니, 피지 및 통가의 3個 太平洋島嶼國의 合同代表團이 參席하였으며 各國代表團은 一般的으로 官界, 實業界 및 學術硏究界(學校 또는 硏究機關)로부터의 重鎭 1人씩, 3人으로 構成되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바람직한 太平洋地域協力體의 必要性과 性格 그리고 推進戰略이 詳細히 論議되고 實踐課題가 採擇되기도 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우선 域內各國間의 情報交換을 擴充하여야 할 것임에 同意하고 이를 推進하기 위하여 25人정도의 人士로 構成되는 常任委員會의 組織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合意를 보았다. 太平洋協力委員會(Pacific Cooperation Committee)로 假稱되었던 이 委員會는 域內의 官界, 實業界 및 學術硏究界의 代表級人士로 構成되는 非公式, 非形式的인 民間機構이다. 또한 이 세미나에서는 主要地域協力問題를 硏究할 몇 개의 專門委員會(Task Force)를 設置하여야 할 것에 同意하였다.

여기에서 想定된 太平洋協力委員會의 主要機能의 하나는 太平洋協力세미나의 持續的 開催를 推進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委員會는 專門委員會를 組織하고 그 活動을 推進함과 아울러 專門委員會의 報告書를 接受 檢討하고 各國政府에 傳達하는 任務를 遂行하도록 되어 있었다. 太平洋協力委員會는 아울러 太平洋協力體의 制度化 方案을 持續的으로 檢討할 것으로 期待되었다. 이러한 여러가지 機能의 遂行과 關聯하여 太平洋協力委員會는 第1次會議를 1981年 봄 以前에 열 것도 이 세미나에서는 促求되었다.

캔베라세미나에서는 太平洋協力委員會의 事務局機能은 旣存機關의 支援에 依存하고 專門委員會의 設置運營을 위해서도 최대한으로 旣存機關을 活用하여야 한다는 데에 意見을 모았다. 이 세미나에서 專門委員會의 設置를 要하는 分野로 提示된 것으로는 貿易, 直接投資, 에너지, 海洋資源 및 國際서비스(交通, 通信 및 敎育交換)등 이었다.

또한 캔베라세미나에서는 旣存機關의 活用을 통하여 PBEC등과 같은 域內의 여러 民間機構

25) 太平洋經濟協力會議는 PECC(1983a, b 및 c)에 의해서 規定된다.

間의 情報交換을 促進하고 域內學者間의 活動인 PAFTAD를 支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合意하였다.

끝으로 이 세미나는 세미나議長이 各國政府에게 太平洋協力委員會의 設立과 事務局의 設置 및 이러한 活動에 따른 財政問題解決計劃을 提示하고 必要한 協助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合意하였다.

캔베라세미나에서의 合議事項은 적어도 當時 設定된 時間計劃대로는 實踐되지 않았다. 이러한 意味에서 太平洋協力推進運動은 한동안 停滯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1982年 6月 泰國의 太平洋經濟協力委員會와 ESCAP이 太平洋經濟協力會議라는 이름으로 캔베라세미나의 後續會議를 共同主催함에 따라 太平洋協力推進運動은 軌道에 오르는 契機를 맞는다.

방콕에서 열린 이 會議의 目的은 太平洋經濟關係의 ASEAN國家들에 대한 意味, 太平洋地域國家間에 經濟交流를 圓滑히 하고 相互摩擦을 防止하기 위한 經濟協力推進體의 必要性 및 經濟協力推進體의 現實的 形態를 論議하는 데에 있었다. 이 會議에는 域內先進5個國, ASEAN 5個國 및 韓國의 代表團以外에도 칠레, ESCAP 및 OECD의 代表團도 參席하였다. 各國參加者들은 캔베라세미나時와 마찬가지로 一般的으로 官界, 實業界 및 學術硏究界의 '3元的' 代表人士로 構成되었으되 이들 모두는 個人의 資格으로 參席하였다.

이 會議에서는 우선 地域協力推進을 위한 當面課題는 域內共同關心問題에 관한 協議의 持續으로 보고 이를 위하여 同會議와 같은 體制아래 協議活動을 繼續하여야 한다는 데에 意見을 모았다. 다음, 방콕會議에서는 이를 推進하기 위하여 農水產品交易, 鑛產品 및 에너지交易, 工產品交易, 그리고 直接投資 및 技術移轉의 4個 分野에 걸쳐 專門委員會를 設置하여 政策問題를 硏究하도록 하고 다음 總會에서 그 結果를 報告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專門委員會活動을 點檢하고 次期會議開催를 推進하는 責任을 遂行할 8人의 常任委員을 域內에서 指名度가 높은 人士中에서 選任하였다[26].

끝으로 同會議에서는 1年·내지 1年半의 사이를 두고 會議를 開催하기로 하고 다음 會議는 1983年 11月 인도네시아에서, 그 다음의 會議는 韓國에서 열기로 合意하였다.

以後 太平洋經濟協力會議 第2次 總會로 불려지게 된 방콕會議는 太平洋地域協力運動의 持續性을 마련하여 준 점에 있어서 그 意義가 크다. 이처럼 탄생하게 된 太平洋協力推進機構는 常任委員會와 4個專門委員會로 構成되는데 이러한 構成은 캔베라세미나에서 提示된 바와 基本的으로 同一한 骨格을 갖는 것이며 이러한 機構의 設立趣旨는 日本硏究그룹의 報告書에 이미 提示된 바와 같은 것이다.

4個 專門委員會의 運營責任은 다음과 같이 委託되었다. 즉 工產品交易分野는 韓國開發硏究院, 農水產品交易分野는 泰國太平洋經濟協力委員會, 鑛產品 및 에너지交易分野는 濠洲國立大學校, 直接投資 및 技術移轉分野는 日本太平洋協力委員會가 각기 運營責任을 맡게되었다.

이들 4個 專門委員會는 太平洋經濟協力會議

26) 그 名單은 다음과 같다.
泰國 Thanat Khoman 前副首相, 인도네시아 Ali Moertopo 最高諮問委員會 副委員長, 濠洲國立大學校 總長 John Crawford卿, 日本 Saburo Okita 前外相, 카나다 알칸알루미늄 Eric A. Trigg 首席副社長, 필리핀 PCI 經營諮問會社 David Sycip 首席顧問, 韓國 南悳祐 貿易協會會長, 美國 Richard L. Sneider 前駐韓大使. PECC 第3次 總會에서는 뉴질랜드의 B. E. Talboys 前外務省長官이 常任委員에 追加되었다.

〈表 6〉 PECC 專門委員會 現況(1984~85)

專門委員會	運營責任國家	運營責任機關	研究課題
農·水産品交易	카나다	未定	水産資源開發
鑛産品 및 에너지交易	濠洲 (PBEC 責任分擔)	濠洲國立大學校	協議體開發
工産品交易	韓國	韓國開發研究院	産業協力 및 貿易協商
直接投資 및 技術移轉	美國 (日本 및 싱가포르 責任分擔)	未定	直接投資를 통한 技術移轉
資本移動	인도네시아 (日本 및 美國 責任分擔)	國際戰略問題研究所	資本市場 및 資本移轉

3次 總會까지의 期間에 걸쳐서 常任委員會와의 緊密한 協議아래 研究報告書를 作成하여 3次 總會에 提出한 바 있다[27]. 이들이 作成한 研究報告書의 特徵은 研究報告書가 學術的 分析이 아닌 協力問題와 政策建議를 內容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각 專門委員會의 研究報告書 및 綜合報告書가 어느 特定國의 個人 또는 機關에 의해서 作成된 것이 아니고 域內 各國이 골고루 參與하여 作成된 것이라는 점이다. 太平洋經濟協力會議 專門委員會 報告書는 이처럼 域內 各國의 立場을 收斂한 政策建議書라는 점에서 意義가 매우 크며 專門委員會의 活動自體가 向後에 있을 太平洋協力事業의 先例와 模型을 提示한다는 점에서 意義가 또한 크다.

太平洋經濟協力會議 3次 總會는 인도네시아 政府 主催로 지난 11月 21~23日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開催되었다. 4個 專門委員會의 報告書의 檢討와 域內國家間의 懸案 協力問題 論議를 議題로 採擇한 同總會의 特徵은 同總會가 第2次 總會에 비하여 參席規模面에서 두倍가까이 擴大되어 代表와 옵저버가 120人에 達하였고 2次 總會에 비하여 훨씬 具體的인 協力問題를 討議하였다는 것이다.

同總會에서는 아직도 太平洋地域國家間에 相互理解가 부족한 탓으로 具體的 政策協力에 着手하기에는 時期尙早라는 立場이 우세하였던 바 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政策問題에 관한 情報交換과 協議의 增大, 그리고 域內國家間의 交易을 增進하고 域內開途國의 經濟發展을 推進하기 위한 協力事業의 雰圍氣造成과 機構開發이 주요 當面 協力課題라는 점에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또한 同總會에서 常任委員會는 專門委員會가 提出한 報告書를 根據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當面實踐課題를 域內 各國 政府에게 建議하였다.

첫째, 域內 各國 政府는 현재 論議되고 있는 새로운 多者間 貿易協商에 적극 參與하여 主導的 役割을 擔當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우선적으로 新規保護貿易措置 不採擇(Stand-still)을 共同 宣言할 것.

둘째, 域內 各國 政府는 太平洋協力會議 專門委員會 報告書에 建議된 具體的인 諸般 協力課題를 愼重히 考慮할 것.

세째, 域內 各國 政府는 交易, 投資 및 技術등의 部門에 걸쳐 相互間의 政策內容과 市場與件에 관한 理解를 增進하기 위하여 域內 協議 活動을 推進할 것.

또한 同總會에서는 太平洋地域國家間의 具體的인 分野別 協力課題의 妥當性과 優先順位

27) PECC (1983c).

를 두고 많은 論難을 벌였던 結果 既存의 4個 專門委員會를 계속 運營할 것과 1個 專門委員會를 追加 設立할 것에 合意하고 運營責任과 硏究課題를 〈表 6〉에 보인 바와 같이 委託하였다.

太平洋協力의 制度化에 관해서는 당분간 太平洋經濟協力會議의 지속적 運營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에 合意를 보았으며 太平洋經濟協力會議의 보다 效果的인 運營을 위해서는 첫째, 常任委員會의 委員을 各 會員國 1人씩의 規模로 擴大하고, 둘째, 常任委員會와의 協議아래 5個 專門委員會 活動을 調整하는 運營委員會(Coordinating Group)를 組織하고, 세째, 太平洋經濟協力會議 및 同會議의 專門委員會 活動을 支援하기 위한 國別 太平洋協力委員會가 이미 組織되어 있지 않은 나라도 이를 官界, 實業界 및 學術硏究界가 參與하는 3元的 參與의 原則에 立脚하여 組織한다는 것에 合意를 보았다.

또한 同總會에서는 次期 總會를 1985年 4月 韓國에서 開催하기로 하고 總會, 常任委員會 및 運營委員會의 事務局 機能은 전과 마찬가지로 次期 總會 主催側이 수행하기로 合意하였다[28].

今般 3次 總會에서는 太平洋協力에 대한 關心이 全域內國家에 걸쳐서 過去 어느 때보다도 高潮되어 있었으며 反面에 太平洋協力의 推進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具體的이고 現實的인 協力課題가 提示되어야 本格化될 수 있다는 立場이 支配的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太平洋經濟協力會議 傘下 各專門委員會의 硏究方向과 政策建議는 太平洋協力推進의 方向과 速度를 決定하는 重大한 役割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Ⅵ. 우리나라의 立場과 對應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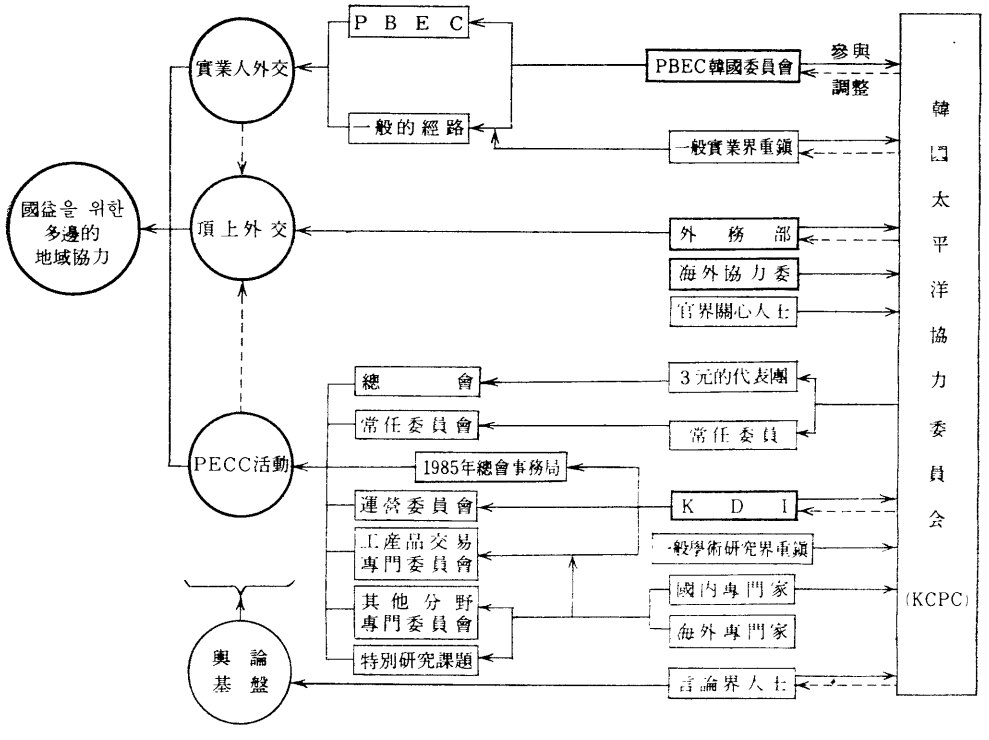
地政學的인 理由로나 經濟的인 理由로나 우리에게는 太平洋地域의 市場經濟國家들의 結束이 매우 바람직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太平洋協力은 美國, 日本 등과 같은 主要域內先進友邦國과 우리나라의 關係를 補强하여 줄 것이며 또한 ASEAN會員國과 우리나라間 相互協力의 基盤을 마련하여 줄 것이다.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가 太平洋協力에 대하여 매우 積極的인 姿勢를 취하여 온 理由는 바로 여기에 있다.

政府次元에서는 바로 우리나라가 太平洋協力을 先導하고 있다는 事實은 이미 紹介되었다. 民間次元에서는 PBEC과 太平洋經濟協力會議의 두 經路를 主軸으로 하여 太平洋協力活動이 활발히 展開되고 있다.

PBEC은 實業人들에 의한 太平洋外交의 자리로서 우리나라 實業人들의 本格的인 參與는 昨年부터 始作되었다고 하겠다. 즉 그동안 PBEC總會에 個人的으로 參與하여 오던 우리나라 實業人들이 獨自的인 「韓國委員會」를 組織한 것이 1982年으로 그간의 交涉結果 PBEC 韓國委員會는 1984年부터 그 地位를 正式 認定받고 1986年에는 第19次 總會를 主催하기로 되

28) 이에 따라 次期總會의 議長職 및 次期總會까지의 常任委員會委員長職은 南惠祐常任委員, 運營委員會 委員長職은 韓國開發硏究院長, 그리고 次期總會事務局은 韓國開發硏究院이 擔當하게 되었다.

〔圖 1〕 우리나라의 太平洋協力 外交課題分擔 構想



었다.

實業人의 太平洋外交는 PBEC만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實業人들의 通常的인 活動에 基盤을 둔 各種 交流를 통하여 보다 普遍的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PBEC韓國委員會를 超越하는 範圍의 實業人들이 太平洋外交에 參與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韓國의 太平洋經濟協力會議活動은 韓國太平洋協力委員會(Korea Committee for Pacific Cooperation)와 韓國開發研究院을 中心으로 하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韓國太平洋協力委員會는 캔베라세미나에 자극받아 1981年 5月에 組織된 것으로 對內的으로는 部門別 太平洋協力推進活動의 效果的인 調整을 도모하고 對外的으로는 太平洋經濟協力會議에 대하여 韓國을 代表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現在 이 委員會는 南悳祐 太平洋經濟協力會議常任委員을 包含하여 官界, 實業界, 學術研究界 및 言論界의 重鎭 約 25人으로 構成되고 있으며, 韓國開發研究院에 事務局을 두고 있다.

韓國開發研究院의 工產品交易專門委員會運營 또한 韓國의 太平洋經濟協力會議 活動의 중요한 一環이다. 國內外의 專門家 多數로 構成되는 이 專門委員會의 運營을 통하여 韓國開發研究院은 工產品交易과 관련된 域內國家間의 協力方案의 開發에 기여하고 있다[29]. 또한 韓國開發研究院은 國際的으로 餘他 專門委員會 責任者 및 常任委員들과 協議 調整하는 가

29) PECC(1983c) 內 Task Force Report on Trade in Manufactured Goods 參照. 同工產品專門委員會 報告書의 國文版은 楊秀吉(1983) 參照.

운데 太平洋經濟協力會議를 중심으로 하는 太平洋協力推進運動의 方向과 速度를 決定하여 나아가는데 重大한 寄與를 하고 있다.

그리고 韓國開發硏究院 以外에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를 위시한 여러 硏究機關에서 활발히 進行되고 있는 太平洋協力硏究事業도 우리나라 太平洋協力事業의 중요한 일부라고 하겠다.

이처럼 部門別로 太平洋協力事業이 활발히 展開되고 있음을 볼 때 당면한 가장 중요한 課題는 이러한 여러 活動의 效果的인 調整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太平洋協力事業의 調整은 〔圖 1〕에 보인 바와 같은 課題分擔의 構想下에 韓國太平洋協力委員會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바 앞으로는 서울에서 開催될 1985年의 太平洋經濟協力會議 總會 및 1986年의 太平洋經濟人協議會總會 등에 대비해서 이러한 調整體系가 더욱 效果的으로 活用되어야 할 것이다.

Ⅶ. 結　　言

本稿에서 詳細히 檢討된 바와 같이 域內에서 展開되고 있는 太平洋協力運動은 두 가지의 價値를 追求하는 것이다. 하나는 「協力」이라는 目標이고 또 하나는 「運動」이라는 過程이다. 太平洋協力運動의 '內部的' 論理에 의하면 太平洋協力運動의 成功은 「協力」이라는 目標가 達成되었느냐로 判斷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좁은 所見이다. 太平洋協力의 가장 큰 障碍物은 域內國家間의 異質性인바, 太平洋協力運動이라는 過程 自體가 바로 이를 克服하기 위한 事業이며 이러한 意味에서는 協力運動自體가 바로 '協力'인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는 太平洋協力運動의 成功의 또 하나의 척도는 「運動」自體가 얼마나 持續되어 왔느냐하는 것이다. 「媒體가 곧 客體이다(medium is the message)」라는 말은 여기에서도 適用될 수 있다.

따라서 太平洋協力은 서둘러서 推進할 일이 아니다. 忍耐와 精誠을 갖고 임하여야 한다.

▷參 考 文 獻◁

高麗大學校亞世亞問題硏究所, 『太平洋地域協力과 韓國의 役割』, 學術세미나報告書, 1982.

楊秀吉, 「太平洋地域의 工產品交易現況과 工產品交易擴大를 위한 協力方案」, 『KDI分期別 經濟展望』, 第 2 卷第 4 號, 韓國開發硏究院, 1983.

外務部, 『太平洋頂上會談構想』, 1982.

_____, 『太平洋頂上會談構想에 대한 國內外 言論 및 學界反應』, 1983.

太平總理の政策硏究會, 『環太平洋連帶の構想』, 1980.

Anderson, Kym, "Prospects for Trade Growth among Pacific Basin Countries," Paper

presented at PECC Task Force Workshop on Trade in Manufactured Goods, 1983.

Chung, Hoon-mok, "Economic Integration in the Pacific Basin: A Historical Review," Sung-joo Han (ed.), *Community-Building in the Pacific Region: Issues and Opportunities,* 198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n Asian-Pacific Regional Economic Organization: An Explanatory Concept Paper,* U.S. Library of Congress, 1979.

Sir John Crawford (ed.),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uggestions for Action,* 1981.

Dickson, B.J., *The Emerging Pacific Community Concept: An American Perspective,* 1983.

Drysdale, Peter, "An Organization for Pacific Trade, Aid and Development: Regional Arrangement and the Resource Trade", Lawrence B. Krause & Hugh Patrick (eds.), *Mineral Resources in the Pacific Area,* 1978.

English, H.E., "The Emerging Pacific Community", 1982.

Fraser, Malcom, "Pacific Community: Further Steps", 1983.

Kim, Kihwan, "Pacific Cooperation in the World Today: An Alliance for Free Trade", 1982.

Kojima, Kiyoshi, "A Pacific Economic Community and Asian Developing Countries", *Hitotsubasi University Jounal of Economics,* Vol. 7, No. 1, 1966.

_____, *Japan and a Pacific Free Trade Area,* 1971.

_____, *Japan and a New World Economic Order,* 1977.

Krause, Lawrence B., "The Pacific Economy in an Interdependent World: A New Institution for the Pacific Basin", K.O. Hanson & T.W. Roehl (eds.), *The United States and the Pacific Economy in the 1980s,* 1980.

Krause, Lawrence B. & Sueo Sekiguchi, *Economic Integration in the Pacific Basin,* 1980.

Morrison, L.E. & A.F. Miyashiro, "Issues in Pan-Pacific Cooperation," Japan Centre for International Exchange, *The Pacific Community Concept: Views from Eight Nations,* 1980.

PBEC Japan National Committee, *PEC Statistics,* 1982.

PECC, "Report of Pacific Community Seminar 1980, Canberra, Australia", 1983a.

_____, "Report of Pacific Cooperation Conference 1982, Bangkok, Thailand", 1983b.

_____, *Issues for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 Report by The Task Forces,* 1983c.

Schultz, G.P., "Pacific Tides Are Rising," 1983.

Soesastro, Hadi, "Institutional Aspects of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oesastro & Han(1983).

Soesastro, Hadi & Sung-joo Han (eds.),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he Next Phase,* 1983.

Sycip, David, "U.S Carribbean Basin Initiative—Why Not a Pacific Economic Community Initiative?"

Watanabe, Toshio, "Pacific Manufactures Trade and Japan's Options", Paper presented at PECC Task Force Workshop on Trade in Manufactured Goods, 1983.

韓國開發硏究院 硏究叢書 案內

1 韓國「인플레이션」의 原因과 그 影響
金光錫 著 18 切 判 · 122 面 高級洋裝 · 1,200원

2 穀價政策의 計劃化~次善의 糧穀政策
文八龍 著 18 切 判 · 158 面 高級洋裝 · 1,800원

3 韓國農業의 成長(1918~1971)
潘性紈 著 18 切 判 · 250 面 高級洋裝 · 2,000원

4 韓國家計의 貯蓄行態
金光錫 著 18 切 判 · 146 面 高級洋裝 · 3,000원

5 農產物價格分析論~理論과 政策
文八龍 柳炳瑞 共著 18 切 判 · 318 面 高級洋裝 · 4,000원

6 *TRADE AND DEVELOPMENT IN KOREA*
洪元卓 A.O. Krueger 編 18 切 判 · 254 面 高級洋裝 · 4,000원

7 *SOCIAL SECURITY IN KOREA*
朴宗淇 著 18 切 判 · 198 面 高級洋裝 · 4,000원

8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L.P. Jones 著 18 切 判 · 294 面 高級洋裝 · 4,000원

9 韓國의 外換 · 貿易政策
金光錫 L.E. Westphal 共著 18 切 判 · 336 面 高級洋裝 · 4,000원

10 *FACTOR SUPPLY AND FACTOR INTENSITY OF TRADE IN KOREA*
洪元卓 著 18 切 判 · 236 面 高級洋裝 · 4,000원

11 勞動供給과 失業構造
金秀坤 著 18 切 判 · 202 面 高級洋裝 · 3,000원

12 韓國의 鐵鋼需要分析
宋熙季 著 18 切 判 · 250 面 高級洋裝 · 3,500원

13 韓國鐵鋼工業의 成長
金胤亨 著 18 切 判 · 508 面 高級洋裝 · 4,000원

14 *PLANNING MODEL AND MACROECONOMIC POLICY ISSUES*
金迪敎 編 18 切 判 · 492 面 高級洋裝 · 4,000원

15 *INDUSTRIAL AND SOCIAL DEVELOPMENT ISSUES*
金迪敎 編 18 切 判 · 342 面 高級洋裝 · 4,000원

16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
金善雄 編 18 切 判 · 532 面 高級洋裝 · 4,500원

17 韓國電力需要 및 價格의 分析
張榮植 著 18 切 判 · 252 面 高級洋裝 · 3,500원

18 市場構造와 獨寡占規制
李奎億 著 18 切 判 · 370 面 高級洋裝 · 3,500원

19 賃金과 勞使關係
金秀坤 著 18 切 判 · 244 面 高級洋裝 · 3,500원

20 韓國의 人口와 人口政策
洪思媛 著 18 切 判 · 214 面 高級洋裝 · 3,500원

21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洪元卓 著 18 切 判 · 410 面 高級洋裝 · 4,000원

22 成長과 構造轉換
金光錫 M. Roemer 共著 18 切 判 · 194 面 高級洋裝 · 3,500원

23 韓國의 綜合輸送體系
林浩奎 著 18 切 判 · 306 面 高級洋裝 · 5,000원

㉔ 韓國企業의 財務行態
南相祐 著 18 切 判 · 204 面 高級洋裝 · 3,500원

㉕ 韓國經濟의 高度成長要因
金光錫 朴埈卿 共著 18 切 判 · 166 面 高級洋裝 · 3,500원

㉖ *COMMUNITY DEVELOPMENT AND HUMAN REPRODUCTIVE BEHAVIOR*
洪思媛 著 18 切 判 · 198 面 高級洋裝 · 4,000원

㉗ 農業投資分析論
文八龍 林栽煥 共著 18 切 判 · 250 面 高級洋裝 · 4,000원

㉘ 纖維 · 電子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金榮奉 著 18 切 判 · 180 面 高級洋裝 · 3,500원

㉙ 鐵鋼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南宗鉉 著 18 切 判 · 192 面 高級洋裝 · 4,000원

㉚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朱鶴中 編 18 切 判 · 470 面 高級洋裝 · 5,500원

㉛ 韓國의 國土 · 都市 · 環境
宋丙洛 編 18 切 判 · 410 面 高級洋裝 · 5,000원

㉜ 韓國의 保健財政과 醫療保險
朴宗淇 著 18 切 判 · 272 面 高級洋裝 · 4,500원

㉝ 石油化學工業의 現況과 展望
具本英 著 18 切 判 · 236 面 高級洋裝 · 4,000원

㉞ 成長과 都市化問題
宋丙洛 E.S. Mills 共著 18 切 判 · 270 面 高級洋裝 · 4,500원

㉟ 韓國의 流通經濟構造
林浩奎 著 18 切 判 · 306 面 高級洋裝 · 5,000원

㊱ 韓國工業化패턴과 그 要因
金光錫 著 18 切 判 · 272 面 高級洋裝 · 4,000원

㊲ 保健醫療資源과 診療生活圈
延河淸 金學泳 共著 18 切 判 · 336 面 高級洋裝 · 5,500원

㊳ 韓國의 敎育과 經濟發展
金榮奉 N.F. McGinn 外 18 切 判 · 272 面 高級洋裝 · 4,500원

㊴ 貿易 · 外援과 經濟開發
A.O. Krueger 著 田英鶴 譯 18 切 判 · 256 面 高級洋裝 · 4,000원

㊵ *MACRO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18 切 判 · 414 面 高級洋裝 · 5,000원

㊶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18 切 判 · 384 面 高級洋裝 · 5,000원

㊷ *KOREAN REGIONAL FARM PRODUCT AND INCOME:1910～75*
A. Keidel 著 18 切 判 · 268 面 高級洋裝 · 4,500원

㊸ 韓國의 農村開發
文八龍 潘性紈 D.H. Perkins 共著 18 切 判 · 396 面 高級洋裝 · 6,000원

㊹ 需給構造와 物價政策
李 烘 著 18 切 判 · 288 面 高級洋裝 · 5,000원

㊺ 經濟開發과 政府 및 企業家의 役割
司空 壹 L.P. Jones 共著 18 切 判 · 410 面 高級洋裝 · 4,500원

㊻ *PRIMARY HEALTH CARE IN KOREA*
延河淸 著 18 切 判 · 214 面 高級洋裝 · 4,000원

47 韓國 經濟·社會의 近代化

金滿堤 E.S. 메이슨 外 18 切 判·530 面 高級洋裝·6,500원

48 輸出主導型 成長經濟의 外換政策

李天杓 著 18 切 判·228 面 高級洋裝·4,000원

49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下)

朱鶴中 著 18 切 判·432 面 高級洋裝·7,000원

50 國民經濟와 福祉年金制度

延河淸 閔載成 共著 18 切 判·428 面 高級洋裝·7,000원

51 技術革新의 過程과 政策

金仁秀 李軫周 共著 18 切 判·402 面 高級洋裝·7,000원

52 韓國의 經濟開發과 人口政策

R.레페토 金善雄 外 18 切 判·328 面 高級洋裝·5,000원

KDI 圖書會員制案內

本研究院은 그간 本院의 刊行物을 필요로 하는 學界 및 企業界의 끊임없는 購讀要請에 副應하고, 本研究院의 研究結果를 보다 廣範圍하게 普及함으로써 國內의 經濟動向과 政府의 經濟政策 등 필요한 學術的 情報를 讀者 여러분에게 보다 손쉽게 傳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製作實費에 의한 KDI 圖書會員制를 實施합니다. 讀者 여러분의 많은 參與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會員에 대한 特典

① 會員加入期間(1年) 중 本研究院이 發刊하는 一切의 刊行物을 郵送함 (但, 自體資料 및 配布制限資料는 除外).

② 本研究院 圖書室 所藏圖書·資料의 利用惠澤을 드림.

2. 會 費 : 50,000원

3. 加入期間 : 年中 언제나 接受하되 接受된 날로부터 **1年間 會員으로서의 資格**이 유지됨. 계속 會員資格을 유지하실 분은 **有効期間 終了以前에 再登錄**을 要함.

4. 加入方法

① 직접 本院 出版課에 拂入하거나

② 가까운 郵遞局에서 本院 郵便對替計座(計座番號 : 010983-31-0514919)에 拂入하시되 **團體**의 경우는 **事業者登錄番號** 및 **代表者名**을, **個人**의 경우는 **住民登錄番號**를 明記해야 함.

5. 其 他

① 刊行物 發送料는 本院이 負擔(國內發送에 限함).

② 受信處의 變更이 있을 때는 즉시 本院 出版課에 通知해야 함.

③ 加入會費 50,000원 외 다른 費用負擔은 없음.

6. 問議處

우편번호 : 131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한국개발연구원 출판과 (전화 967-3287)